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확산과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장윤희**

〈차 례〉

1. 여는 말
2.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확산과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3.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연구 방안
4.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연구 의의
5. 맺는 말

[국문초록]

동아시아한국학을 심화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연구이다. 동아시아한국학은 해외 한국학을 국내 한국학의 주변으로 보는 인식을 교정해 준다. 동아시아한국학의 방법론으로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을 살펴봄으로써 해외 한국학이 국내 한국학과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등한 '복수의 한국학'임을 밝힐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동아시아한국학 연구의 한계점인 시·공간적 제약, 담론 위주의 추상성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연구를 보다 심화·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한국학을 일본 한국학, 서구권 한국학, 사회주의권 한국학으로 권역을 구획하고 각 지역 한국학 주제와 제도, 사상 또는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집단전기학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냉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현지 한국학의 전개 과정상 특징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한국학'으로 존재하는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은 물론 국내 한국학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한국학의 발전과 심화는 물론 한국학을 당당한 세계 학술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한국학,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복수의 한국학, 상생과 소통, 일본 한국학, 서구 한국학, 사회주의권 한국학, 냉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C2A02081047). 이 논문은 2021년 1월 21~22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해외 한국학 집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의 지향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초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여는 말

최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물론 대중문화의 확산에 따른 측면이 있고 그 관심이 대중문화 등 몇몇 분야에 국한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20~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관심의 절대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국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한국학의 연구와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현재 해외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 기관에 대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한국학 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 등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해외 연구 집단들이 지원 사업 종료 뒤까지 자생력을 갖춘 고등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해외 현지의 문화적·사회적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한국학을 일방적 확산을 위한 성과 위주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을 통해 해외 현지에 뿌리내릴 수 있는 ‘한국학’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던 듯하다.

‘한국학의 세계화’를 기치로 해외 한국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해외는 국내 한국학의 이식과 확산의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각 지역의 한국학 전통과 배경은 그리 중시되지 않았다. 물론 해외 현지의 주목되는 성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목의 대상은 그 성과 자체일 뿐 그것이 도출될 수 있었던 사회적, 제도적,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관심의 대상은 해외 현지의 한국학 교육의 현황 및 체제, 연혁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¹⁾ 이러한 상태에서 세계 학문의 주변부에 있어 현지에서도 주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이고 연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효율적인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해외 현지 한국학의 전통과 계보, 성격 등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국내 한국학이 한국학의 중심이고 해외 한국학은 한국학의 주변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국학 수준으로 해외 한국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한국학의 성격이 어떠한 국내의 지원을 통해 국내 한국학에 근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각 지역의 한국학은 그 지역의 일정한 문화적, 사상적 배경 아래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해외 한국학이 가지는 특성 및 의의나 가치는 물론 특정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해외 현지 한국학의 전통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외 각지의 한국학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된 학문적 기치이자 방법론이 바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안된 ‘동아시아한국학’이다. 애초 동아시아한국학은 한국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다.(이영호, 2006: 16~17) 서구 학계에서 ‘이중의 주변’²⁾에 있는 한국학이 지닌, 서양 한국학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동아시아적 정체성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동안 세계의 주변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닌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국학에서 ‘소통적 보편성’(백영서, 2007: 48)을 지닌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여기에 서구 한국학과 우리의 한국학을 ‘중심-주변’의 관계로 볼 수 없듯이 국내 한국학과 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 역시 ‘중심-주변’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더

1) 이 자리는 기존의 해외 한국학에 대한 연구나 지원 방식 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구체적인 연구나 견해는 보이지 않기로 한다.

2) 백영서(2007: 50)에서 한국학을 해외에서 주변화된 동아시아 지역학 속에서 다시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더 주변적인 위치에 있음을 ‘이중으로 주변화된 위치’로, 류준필(2015: 594)에서는 ‘이중적 주변’으로 표현한 바 있다.

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은 국내 한국학의 주변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학문적 전통과 방법론을 지닌 또 다른 중심이며 국내 한국학과의 발전적 교류를 하기에 충분한 ‘복수의 한국학’으로 존재하고 또 그 러해야 한다고 보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한국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 한국학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내 한국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른바 ‘상생과 소통의 한국학’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한국학의 인식과 방법은 동아시아 너머의 세계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지의 한국학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한국학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확장적 적용이 발전적인 것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아시아한국학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동안의 동아시아한국학의 성과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를 세계 각지의 한국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결론적 대안으로 제시한 ‘해외 한국학 집단의 집단전기학’의 ‘집단전기학(prosopography)’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집단전기학은 사소해 보이는 문서들까지도 취합하고 종합하여 특정 집단의 인적 배경과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집단의 실체와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³⁾ 이러한 실증적 방법을 통해 해외 한국학의 형성과 발전에 관여한 인간과 그 한국학 형성에 작용한 제도 등의 환경, 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의 주체와 역사, 영향 관계 등 구체적 실상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복수의 한국학’의 형성 과정과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한국학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3) 집단전기학적 방법을 활용한 실제 연구 등 자세한 내용은 나중일(1985)를 참조할 것.

2.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확산과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동아시아에서 복수로 존재하며 상생하고 소통하는 한국학으로서의 동아시아한국학은 2000년대 후반부터 주로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발전해 왔다. 동아시아한국학이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한 요건인 ‘제도화’ 가능성(백영서, 2007: 52)을 인하대학교에서는 BK, HK사업을 통해 융합학제인 대학원 한국학과와 한국학연구소라는 제도를 갖추으로써 동아시아한국학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동아시아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을 아우르는 인적·학적 한국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함으로써 동아시아한국학이 가능태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도출된 의미 있는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한국학을 보다 심화하고 이를 동아시아 너머 세계로 확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반성과 문제 해결 방안의 도출 과정을 통해서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을 발전의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 연구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동아시아 너머 세계 각 지역 한국학 역시 각각 ‘복수의 한국학’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정체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1) 담론 중심에서 실증으로

그동안의 동아시아한국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담론 위주의 추상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학술적 주제 위주로 이루어진 추상적 연구의 결과 이를 실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이다. 실증적 자료는 연구의 객관적 설득력을 확보함은 물론 발전적인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듯 추상적인 담론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의 대상이 주제에 따라 개별화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이렇게 개별화되고 파편화한 대상을 다룸으로써 동아시아 각 지역 한국학의 주체와 제도, 계보 등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⁴⁾

이러한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으로 ‘집단전기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전기학은 문서 등 실증적 자료들을 통해서 특정 집단의 실체와 사회상을 파악하는 실증적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의 각종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한국학의 주체와 계보, 사상과 제도 등을 실증적으로 살핌으로써 담론 위주 연구가 지닌 추상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축적함으로써 발전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집단전기학의 방법이야말로 동아시아한국학의 담론 위주의 추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동아시아한국학 연구 대상의 시·공간적 확장

그동안 이루어진 동아시아한국학의 둘째 문제점은 연구의 대상이 시·공간적으로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적으로는 개항을 포함한 근대이행기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로, 공간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로 국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해외에서 한국학이 형성되어 자리 잡아 가는 시기일 뿐이며, 공간적으로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진 세계 한국학의 일부분일 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유

4) 이는 비단 동아시아한국학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해외 한국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이루어진 동아시아한국학 연구 가운데 연변 지역의 한국학 집단과 계보 등을 밝히고자 한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2013년, 2017년)은 연변 지역 한국학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른바 ‘연변학’의 주체들에 초점을 둔 차별성 있는 성과로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주체들과 역사, 제도 등을 종합하여 ‘연변학’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럽, 미국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해외 한국학의 시·공간은 지나치게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그 연구 대상을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너머의 세계까지, 시간적으로는 현재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외 한국학의 형성 무대와 관련하여 우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유럽 지역이다. 또한 해방 이후의 해외 한국학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한 미국도 빼놓을 수 없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는 물론 그 너머 세계 각 지역의 한국학 집단의 형성과 계보를 통해 '복수의 한국학'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낼 때, 동아시아한국학은 대안적 한국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는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의 형성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시점까지를 정밀하게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시간의 두께만큼 다뤄야 하는 자료의 양과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성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해당 지역 한국학의 변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각 기간 동안의 계보와 변화를 정밀하게 살피되 연구의 규모에 따라 대상 기간을 특정할 필요도 있다.

3.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연구 방안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공간축과 시간축을 기준으로 구획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세계 각 지역에서 상이한 역사적·사회적 배경 아래 형성되고 존재하는 현지 한국학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들 복수의 한국학 사이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한국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간축을 기준으로 구획을 지어 각 지역 한국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역사적·사회적·사상적 배경에 의해 한국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복수의 한국학은 물론 국내 한국학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1) 해외 한국학 집단의 권역별 구획: 일본 한국학, 서구 한국학, 사회주의 한국학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을 위해서는 우선 세계 각 지역 한국학 집단을 권역별로 구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연구와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으로는 우선 공통의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역사적으로 교류가 빈번했던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또한 서구에서의 한국학의 성립 시기에 큰 역할을 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유럽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9세기 초부터 한국학적 사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한국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⁵⁾ 해방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밀접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서구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한국학적 전통이 확인되는 해외 각 지역을 단순히 지리적으로 구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학적 전통이 확인되는 지역 가운데 유럽의 러시아는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중국은 20세기 중반에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변모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나머지 권역들과의 학문적 교류는 물론 소통조차 쉽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⁶⁾을 충

5) 19세기까지의 유럽 및 미국의 한국학에 대한 이해는 제정러시아 대장성에서 간행한 『한국지(KOPEI)』(1900)에 집대성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의 간행은 학술적 관심보다는 정책적 관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6) 과문한 탓이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하다.

분히 추론할 수 있어 이들을 단순히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권역을 구획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이에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학을 사회주의권 한국학으로 함께 묶어 특히 냉전 이후의 한국학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과연 한국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양상이 어떠한지 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한국학 가운데 일본의 한국학은 여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 근대이행기 이후는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한국학은 오히려 국내 한국학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한국학의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 연원이 깊고, 역사적 지층도 두터운 것이다. 이러한 일본 한국학을 다른 해외 한국학과 대등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학은 별도의 권역으로 다루어 여타 지역의 한국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서구 지역 가운데 유럽 각국과 미국은 한국학의 전개 과정이나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애초 제국주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공통성이 있음은 물론, 이들 국가는 학문적 교류가 활발한 하나의 학문 공동체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서구 한국학 권역으로 함께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은 전통적으로 동양학 연구의 전통이 있었다는 점이나 미국은 앵글로색슨주의와 개신교의 영향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한국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해외 한국학을 일본 한국학, 서구권 한국학, 사회주의권 한국학으로 구획지어 각 지역 한국학의 주체인 인간, 제도, 사상 또는 문화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2) 해외 한국학 발전 과정의 단계적 이해: 냉전 전과 이후

주지하듯이 냉전은 세계사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 한국학의 전개 과정에서도 냉전 체제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냉전에 의한 분단을 경험한 국내 한국학은 물론이고, 특히 사회주의권 한국학과 미국 한국학에서 냉전은 한국학의 전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냉전의 시작이 해방과 겹친다는 점에서 일본 한국학의 전개 과정에서도 냉전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해외 한국학의 형성 이후 전개 과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냉전 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사상이 어떻게 한국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해외 한국학 집단전기학 연구 의의

1) 동아시아한국학의 리쑤적 확산

동아시아한국학은 국내의 한국학과 해외 한국학을 중심 대 주변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반성을 통해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는 일은 기본적으로 해외 각 지역의 한국학이 또 다른 중심적 한국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이 국내의 한국학과 중심/주변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생적인 관계로 소통하는 ‘복수의 한국학’으로 정립시키는 일은 결국 동아시아한국학을 그 지역에 확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해외 한국

7) 일제강점기의 재조선 일본 한국학자들이 해방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天理大學 등에 재직하게 됨으로써 이들 대학이 일본 한국학의 주요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학의 집단전기학은 동아시아한국학을 ‘리좀(Rhizome)’적으로⁸⁾ 확산함으로써 ‘복수의 한국학’의 탈위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학의 리좀적 확산은, 해외 현지 한국학이 그 전통과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나게 된 특수성을 소통적 보편성과 결부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해외 현지 한국학의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은 타당한 지원 방법일 수 없다. 해외 각지의 상황과 한국학의 특수성을 살려 현지에서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한국학의 ‘이중적 주변성’ 극복

이러한 동아시아한국학의 연구 방법과 인식을 해외 한국학 집단과 공유·확산하는 일은, 지금까지 세계 학계의 ‘이중적 주변’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학이 그 주변성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한국학이 국내 한국학의 주변이고 따라서 국내 한국학을 이식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동아시아한국학의 확산을 통해서 상생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심으로 정위된 ‘복수의 한국학’들이 많아지는 일은 곧 한국학의 세계적 주변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폭넓은 지역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한국학 연구가 활성화하여 ‘학술 한류’가 만들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서구권에서 영어권을 정점으로 서열화된 학문 평가(백영서, 2007: 53)의 시각에서 ‘이중적 주변’으로 치부되던 한국학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서구의 학문이 중심이며 한국학은 학문의 주변이라는 서구 중심적 인식의 부당성이 널리 공유되어 왔음에도 국내 한국학의 한편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변성’이라는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해외 한국학의

8) Deleuze & Guattari(1980)의 서론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철학사전』(임석진 외, 2009)에 따르면, 리좀은 ‘근경(根莖)’, 뿌리줄기 등으로 번역되는데, 줄기가 마치 뿌리처럼 땅속으로 파고들어 난맥(亂脈)을 이룬 것으로, 뿌리와 줄기의 구별이 사실상 모호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수목(樹木)이 계통화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리좀은 욕망의 흐름이 지닌 통일되거나 위계화되지 않은 복수성과 이질 발생, 그리고 새로운 접속과 창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한다.

집단전기학 연구를 통해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5. 맺는 말

우리는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학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고 이를 보다 심화·확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상생과 소통의 동아시아한국학에 의한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연구를 제안한다. 해외 한국학을 국내 한국학의 주변으로 보는 인식을 부정하는 동아시아한국학의 시각과 방법을 통해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의 실체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 해외 한국학이 상생하고 소통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국내 한국학과 대등한 ‘복수의 한국학’임을 밝힐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동아시아한국학 연구의 한계점이었던 시·공간적 제약, 담론 위주의 추상성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심화하고 확산된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연구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해외 한국학을 일본 한국학, 서구권 한국학, 사회주의권 한국학으로 권역을 구획하고 각 지역 한국학 주체와 제도, 사상 또는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집단전기학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간적으로는 냉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각 시기 현지 한국학의 전개 과정상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시간과 권역의 차이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복수의 한국학’으로 존재하는 해외 각 지역 한국학은 물론 국내 한국학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동아시아한국학의 발전과 심화는 물론 한국학을 당당한 세계 학술의 하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한국학의 시도는 이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점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예상된다. 당장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해외 각지 한국학 현장의 전문가와의 교류와 현지 자료 조사 등이 필수적인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1년 넘게 이러한 학술 활동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연구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도인 만큼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국내 및 해외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 참고문헌

- 곽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35-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11~241.
-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2003, 129~165.
- 김진량,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283~307.
- 나중일, 『집단지학』, 『서양사연구』 7, 서울대 서양사연구회, 1985, 1~44.
-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민족문화론에서 동아시아론까지』(백영서·김명인 엮음), 창비, 2013, 266~294.
- _____,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에 대하여-‘흔들린 조공질서’와 ‘이성적 대화’를 중심으로-임형택,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창비, 2014)에 대한 리뷰』, 『비교한국학』 23-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577~600.
- 박태균, 『세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성찰적 접근』, 『국제·지역연구』 29-3, 서울대 국제대학원, 2020, 83~105.
- 백영서, 『인문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길: 이념, 제도』, 『한국학연구』 1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7, 41~55.
-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 이영호,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동아시아 한국학』, 『한국학연구』 1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6, 9~20.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 글로벌콘텐츠, 2012.
- _____, 『동아시아한국학의 형성: 근대성과 식민성의 착종』, 소명출판, 2013.
- _____, 『동아시아한국학의 분화와 계보: 복수의 한국학들』, 소명출판, 2013.
- _____, 『러시아의 한국학과 복우 계봉우』, 소명출판, 2013.
- _____, 『연변학의 선구자들』, 소명출판, 2013.
- _____,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자국어인식과 자국어학의 성립』, 소명출판, 2015.
- _____, 『연변학의 선구자들 2』, 소명출판, 2017.
- 최원식, 『탈냉정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창작과 비평』 1993년 봄호(제79호), 1993, 204~225.
- 한성우 편,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지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 Deleuze, G & Guattari, F,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1980.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1]

Prosopography of Korean Studies Abroad for Deepening and Spreading East Asian Koreanology

Jang, Yoonhee*

The Prosopography of Korean Studies abroad is the way to deepen and spread East Asian Koreanology.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Koreanology corrects the view of regarding Korean Studies abroad as the periphery of domestic Korean Studies. By examining Korean Studies in each region abroad with this methodology, we can see that Korean Studies abroad is in an equal relationship that allows domestic Korean Studies to coexis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 Prosopography of Korean Studies abroad is a way to escape from the problems of previous research of East Asian Korean, that is,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and abstractness of discourse-oriented research, to further develop.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ide Korean studies abroad into three regions: Korean studies in Japan, Korean studies in the West, Korean studies in socialist region. And then, Each region's prosopography should be described centering on the subject, institution and ideological(or cultural) aspects of Korean studies. In addition, in terms of tim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ld Wa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Korean studies in each period.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grasp the identity of domestic Korean Studies as well as Korean Studies in each region abroad, which exists as a 'Korean studies in multitude'. This research will be a way to develop

* Inha university

and deepen East Asian Koreanology as well as to develop Korean Studies as one of the most revered global academics.

Key words: East Asian Koreanology, Korean studies abroad, prosopography, Korean studies in multitude,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Korean studies in Japan, Korean studies in the West, Korean studies in socialist region, Cold War